



5면

전주 여행자 위한 한옥마을도서관 개관

# 전주매일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음 10월 16일) 제31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 태풍 '힌남노' 복구계획 확정

### 총 43억원 규모, 예비비 등 활용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도 100만원 추가 지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9월 3~7일 발생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태풍 북상으로 도내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표됐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벼도복 등), 산림작물(낙과 등)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비는 평균 74.0mm다. 최고는 정읍 120.9mm, 최저는 완주 50.2mm였다. 일 최대 순간 풍속은 무주 21.6m/s, 익산 20.1m/s, 전주 18.9m/s 등의 강풍이 발생했다.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에 1만9,907건, 피해액은 1억7,700만원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으며, 전국 피해액 2,439억원(전국 대비 0.07%) 대비 적게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9,907건으로 농작물 4,869ha, 산림 작물 92ha, 농림시설 3.7ha, 소상공인 침수 3건 등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3억1,1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번 태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농작물,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43억2,000만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90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

가 3,000만원 이상인 11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 제외)에는 국·도비가 지원된다. 3,000만원 미만인 3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특히, 당초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8월 집중호우(북구계곡시 200만원/개소에 비해 100만원 증가한

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비 부담분(10억6,7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제 남세 유역과 지방세 감면, 통신폭약,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정부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액(당초 200만원/개소)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8월 발생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의 대비 부담분(9,0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정례회 개최

김관영 도지사 및 사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6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전북도, 내일부터 30일간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공연장·경기장·지역축제 등 8개분야 273곳 대상

안전관리실태·운집시 예상이동 경로 등에 집중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시설별 선정기준에 따른 공연장·경기장, 지역축제, 종교시설, 여객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 고위험시설, 자연공원(도립·군립) 등 8개 분야 273개소다.

점검내용은 안전관리실태, 시설 이상 유무, 다중이용시설 예상이동(피난) 경로,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

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하며,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기존 남원시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남원시 국가예산전략센터 개소식이 8일 열린 가운데, 최경식 시장과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부 정책 대응능력 강화 국가예산 확보 중점 관리

### 남원 세종사무소 기능 강화 시, 국가예산전략센터 개소 중앙부처와 소통창구 역할

남원시는 8일, 중앙부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부처 단계부터 중점 관리하기 위해 기존 남원시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남원시 국가예산전략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와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 대응, 중앙부처 공무원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정책동향 파악 등이 낱알이 중요해지고 있는 중앙부처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국가예산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경식 시장과 이미선 남원시의회 부의장, 양충모 남공회장(전 새만금개발청장), 박한근 재경남원항우회장 및 중앙부처 주요인사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격려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으며 남원시 국회입정 동안 지역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축전을 전했다. 관계자가 밝혔다.

남원시 센터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세종청사와 접근성이 우수한 여진동 내 세종중앙타운에 사무실 공간 배치 및 리모델링, 직원 인사 배치 등이 완료돼 8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원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업무도 처리하고 회의도 진행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상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중앙부처와 남원시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완성되어 남원시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경식 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존 세종사무소의 위상과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풍부한 정보력과 대외활동력을 바탕으로 국가예산을 최대로 확보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회원가입'하면  
적립금 3,000원!!

자사물  
전품목  
20% 할인!!

www.jinangwonmall.com

###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 전격 오픈!

- 01 농산물 안정성 인증**  
잔류농약검사, 진안산 농산물 취급 등 간간한 심사절차!
- 02 홍삼특구 진안명품홍삼**  
진안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선별!
- 03 HACCP 인증**  
HACCP인증으로 가공된 진안의 다양한 가공식품!
- 04 청정 진안고원 농산물**  
고원지대 특장인 큰 일교차로 단단한 과육, 우수한 저장성과 맛!

본 행사는 11월 1일 ~ 11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